

##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기공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이 될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기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중앙정부 여러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전하는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 땅의 주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도시의 주인으로 다시 돌아올 때, 자랑스럽게 오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저는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가장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특별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멀리 내다보며 수준 높은 협력을 이뤄 낸 이러한 역량이야말로 무엇보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중 최대 규모입니다. 그만큼 파급효과도 클 것입니다. 관련된 민간기업이 함께 내려오고, 이들이 지역대학과 클러스터를 형성해 기업 생태계를 만들면 이곳은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것입니다.

광주·전남의 발전도 혁신도시의 성공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안과 해남·영암에 기업도시가 들어서고, 서남권 개발사업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 이어 호남고속철도, 목포신항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성공을 힘껏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과 가족 여러분이 마음 놓고 내려와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같은 공간구조의 개편과 함께 제도 개혁, 재정 지원, 혁신클러스터 구축, 지역산업 육성, 지방대학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엇보다 지방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방의 연구개발 예산을 1조 5천억 원에서 3조 2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11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누리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산업클러스터, 생명과학클러스터, 농업클러스터 등을 전국 곳곳에 구축하고 있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광산업은 그 좋은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자원의 배분에 있어 지방우선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 신설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올해 6조 8천억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2003년 65조 원에서 올해 90조 원까지 늘렸습니다. 정책 하나, 사업 하나 만들 때에도 균형발전영향평가를 통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

저는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1인당 지역총생산이 2004년부터 수도권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혁신형 중소기업이 2002년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순유입 인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4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중앙 집중을 되돌리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2단계 균형발전정책입니다.

1단계 정책이 혁신도시처럼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것이라면, 2단계 정책은 민간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기업에게 차등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1조 원가량을 지방 기업 활성화를 위해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수도권의 저항이 거센데다, 지방에서조차 일부 지역이 자기가 받은 등급에 불만을 가지면서 이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제대로 가야 균형발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약 50년 동안 중앙 집중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바로잡아 가자면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균형발전정책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균형발전정책이 계속 진전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겠지 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힘겹게 만들어 온 균형발전정책이 하나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정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약으로 받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발전정책을 지켜 낼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균형발전정책이 다음 정부, 그리고 그 다음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기공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